

Maison marie claire

2023 OCTOBER
WWW.MAISONKOREA.COM

COVER STORY
로맨틱하고 빈티지한
파리지앵 아파트

INTERVIEW
태오양 스튜디오 양태오

EXHIBITION
양혜규 <동면 한옥>

TRAVEL
이비자, 멕시코 여행

FAIR REVIEW
파리 디자인 위크 2023

FALL IN SHOPPING

가을맞이 집 단장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공간별 맞춤 쇼핑 아이템 98

정가 9,000원





Amélie Maison d'Art

Paris Design Week 2023

지난 9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흘간 진행된
파리 디자인 위크의 하이라이트.

EDITOR 박명주 WRITER 양윤정

파리 디자인 위크 2023은 매년 늘어나는 참가 업체와 디자이너의 작품으로 볼거리가 풍성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의 프로그램 역시 관계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디자인이라는 주제가 패션과 공예, 아트의 영역까지 확장되면서 라이프스타일 전체를 아우르는 움직임도 본격화된 것. 이제 디자인은 훨씬 더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단어가 되었으며, 이를 향유하고 활용하는 대상 또한 점점 넓어지고 있다. 2023년 파리 디자인 위크는 이처럼 디자인 대중화가 돋보이는 시간이었다.



Uchronia



Sinople

뉴 키즈들의 발견

Horizons by 시노플

마레 지구 중심에 위치한 공예/디자인 전문 갤러리 시노플 Sinople에서 디자인 위크를 맞이해 벨기에 젊은 디자이너들을 초대했다. 장식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프랑스와 반대로 실험적이고 예술적인 결과물을 추구하는 것이 벨기에 디자인의 특징. 창조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른 젊은 미니멀리스트들의 표현법은 다소 아방가르드하고 모든 제약을 무시한 듯해 불편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티보 스카세리오 Thibeau Scarcériaux의 충알을 맞아 훼손된 유리로 만든 의자, 이제는 구하기 어려운 엑스레이 판을 수집해 불을 켜면 해골이 보이는 조명과 파티션을 제작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충격적인 비주얼 뒤에 담긴 자유에 대한 메시지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 작품의 본질이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철제 프레임 위에 돌을 얹어 스톤이 된 요리스 베르스트레펜 Joris Verstrepen의 작품 또한 예술품을 대하듯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WEB sinople.paris](http://www.sinople.paris)

FEU! by 밋 멧 멧

젊은 세 명의 디자이너, 엘더 바르보사 Helder Barbosa, 티보 위게 Thibault Huguet, 장-바티스트 아노탕 Jean-Baptiste Anotin이 2022년에 설립한 밋 멧 멧 MEET MET MET은 매년 주어진 주제에 따라 그룹전을 여는 방식으로 새로운 국제적 디자인 현상을 추구하는 비영리 디자인 집단이다. 이번에는 '불 FEU!'이라는 주제로 20명의 디자이너를 초대해 재떨이와 관련된 오브제를 디자인하도록 했다. 젊은 디자이너 집단인 만큼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볼 수 있었는데, 담배와 성냥을 위한 디자인이 이토록 다채로울 수 있는지 웃음 짓게 만든다. 메탈, 도자, 유리, 왁스 등 다양한 소재와 매력적인 디자인 그리고 직접 만지며 사용법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대중에게 인기를 끌었다.

